

제17735호 2판
2007년 4월 21일 토요일

‘명품 조연’ 빛나네

수목드라마 경쟁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MBC ‘고맙습니다’에 출연중인 ‘미스타리’는 시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중 한명이다.

미술모인 손녀 ‘영선’, 에이즈에 걸린 증손녀 ‘봄이’와 함께 사는 ‘미스타리’는 차매에 걸린 노인이지만 아이처럼 순진한 대사로 시청자들을 물리고 웃긴다. 이런 ‘미스타리’를 완벽하게 연기하는 이는 바로 탤런트 신구. 극 초반에서 주인공 장혁을 ‘형’이라고 부르며 줄기차게 ‘형 오줌 씨’를 외쳐대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명장면으로 꼽힌다.

‘명품 조연’이 뜬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극의 완성도를 높이며 때론 주연보다 더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한다.

‘고맙습니다’에는 맷갈스런 조연이 2명 더 등장한다. 넉살 좋은 연기로 첫사랑 ‘미스타리’를 잊지 못하는 ‘미스 송씨’로 분하고 있는 전원주와 영신 모녀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리치 강여사’로 출연중인 강부자가 바로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신구와 함께 ‘조연 3인방’으로 꼽힌다.

‘김수현의 힘’을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는 SBS 드라마 ‘내 여자의 남자’에 등장하는 달삼 부부도 특급조연으로 꼽힌다.

극의 중심을 잡는 건 배종옥·김희애·김상중이지만 하유미와 김병세가 연기하는 달삼 부부 역시 극의 분위기를 이끌며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하유미는 여동생 배종옥의 남편을 유혹한 김희애를 찾아가 ‘박살’을 내는 장면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나에게도 저런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인상적인 연기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물론 ‘언어의 마술사’라는 김수현의 ‘강한 대사’가 바탕이 되기는 했지만 연기력이 밝쳐 주지 못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신구·하유미·김정태 등

맛깔 연기로 재미 더해

고현정이 강력반장을 맡아 열연중인 MBC 드라마 ‘히트’에서 강력반 팀원으로 등장하는 배우들 역시 맷갈스런 조연으로 인기를 모고 있다.

돈 밟히고 무지하게 말 많은 심종금으로 출연중인 김정태, 최근 개봉한 영화 ‘우아한 세계’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25년 만년 경사 장용하로 분한 최일희, 묵묵히 덩치값 하는 남성식으로 출연중인 마동석이 주인공이다.

이다해가 주인공으로 출연중인 KBS 월화

드라마 ‘헬로우 애기씨’에 서 코믹한 ‘과부장’역을 맡고 있는 김광규도 눈에 띄는 조연이다.

이미 한예슬 주연의 ‘환상의 커플’에서 ‘공실장’

으로 출연, ‘계주 누님’ 이미영과 함께 환상의 코미디연기를 보여준 김광규는 ‘헬로우 애기씨’에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아부의 1인자로 출연중이다.

그밖에 많은 화제를 뿌리고 막을 내린 MBC 드라마 ‘하얀거탑’에 조연으로 출연한 차인표도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 장준혁 역을 맡은 김명민과 외과장 자리 를 두고 다투는 노민국 교수로 출연한 차인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주역급이지만 단 4회 출연하는 조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히트’의 마동석·김정태



‘내 여자의 남자’의 하유미·김병세



‘고맙습니다’의 신구



‘헬로우 애기씨’의 김광규



10 BOX OFFICE

영화

| 순위 | 제목 | 서울관객 | 전국누계 |
|----|------------------|-----------|------------|
| 1 | 극락도 살인사건 | 15만 4천400 | 66만 200 |
| 2 | 우아한 세계 | 6만 1천200 | 80만 5천100 |
| 3 | 고스트 라이더 | 5만 600 | 20만 4천200 |
| 4 | 300 | 3만 1천400 | 288만 3천300 |
| 5 | 이장과 군수 | 3만 116만 | 116만 |
| 6 | 황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4만 1천400 | 88만 300 |
| 7 | 천년학 | 1만 8천800 | 7만 200 |
| 8 |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코치 | 1만 6천400 | 19만 2천100 |
| 9 | 블랙복 | 6천500 | 18만 2천500 |

(단위: 명)

TV

| 순위 | 제 목 | 방송국·시청률 |
|----|----------------|-------------|
| 1 | 하늘만큼 땅만큼 | KBS1 30.2 |
| 2 | 행복한 여자 | KBS2 27.8 |
| 3 | 대조영 | KBS1 24.1 |
| 4 | 니쁜여자 착한여자 | MBC 21.4 |
| 5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SBS 19.6 |
| 6 | 개그콘서트 | KBS2 18.0 |
| 7 | 거침 없이 하이킥 | MBC 17.9 |
| 8 | 이줌미가 간다 | KBS2 17.4 |
| 9 | VJ특공대 | KBS2 17.2 |
| 10 | 무한도전 | MBC 16.9 |

(단위: %)

비디오

| 순위 | 제 목 | 장르 |
|----|-----------------|-----|
| 1 | 미녀는 괴로워 | 코미디 |
| 2 | 미파도2 | 코미디 |
| 3 | 비밀피기 좋은 날 | 드라마 |
| 4 | 조폭미누라 3 | 액션 |
| 5 |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 코미디 |
| 6 | 황후화 | 드라마 |
| 7 | 티짜 | 드라마 |
| 8 | 최강로맨스 | 드라마 |
| 9 | 나비효과? | 드라마 |
| 10 | 옹박 - 두번째 미션 | 액션 |

(자료제공: TNS리서치)

가요

| 순위 | 제 목 | 가수 |
|----|----------------|--------|
| 1 | 시작보다 끝이 이름인 사랑 | 리사&이승철 |
| 2 | 시계 | 이승철 |
| 3 | 감사 | 김동률 |
| 4 | 허수아비 | 김건모 |
| 5 | 리턴스 | 엠씨디액스 |
| 6 | 흔들어봐 | 길건 |
| 7 | 비행소녀 | 마골피 |
| 8 | 이별잃이 | 팀 |
| 9 | 러브 러브 러브 | 에픽하이 |
| 10 | 이리랑 | SG워너비 |

(자료제공: 벽스뮤직)

3집 음반 낸 렉시



“섹시미 대신 중성미로 승부”

렉시가 3집 음반을 출시했다. 보컬을 덜어내고 탄성 있는 랩을 놀려담았다. ‘겟 업(Get Up)’ ‘러시(Rush)’ ‘핫 디스 파티(Hit This Party)’까지 오랜만에 일관성 있는 음반이다.

여자 가수들의 ‘섹시 코드 광풍(狂風)’이 일고 있는 가운데 렉시는 중성적인 이미지로 승부수를 던졌다.

“2집 때는 섹시한 척을 했다”는 그는 “여느 여자 가수들과 달리 바가 없어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속이 여려 잘 운다는 점에선 전상 여자지만 애망은 남자보다도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정서상 여자가 선미습처럼 남성성을 강조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고, 성별(性別)의 경계를 잘 넘나들겠다는 뜻이다.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저보고 여자이기를 포기

한 애래요(웃음). 무대에서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데 공연하다 속눈썹이 귀찮으면 떼어내 버리거든요. 양 이사님은 ‘제발 흥분 좀 하지 마라. 무대에서 너무 흥분해 짜증난다’고 하세요. 원래 땀을 많이 안 흘렸는데 스케줄이 많아진 2004년부터 밴에서 눈 뿐이고 무대에 올라가 순간적으로 몸이 데워지는 걸 반복했기 때문인가봐요. 전 무대에서 너무 몸이 쉬 달궈져요.”

미국 출신 페리(Perry)와의 녹음을 수월했다. 렉시가 작사한 ‘베이비 보이(Baby Boy)’는 15분 만에 녹음을 마쳤다. 페리는 녹음 내내 “퍼펙트, 좋아, 굿”이라며 칭찬했다. “단점을 리얼하게 짚어내는 천재 작곡가 페리에게 인정받은 게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고 한다.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2007년 4월 20일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등록번호: 광주기 1

</